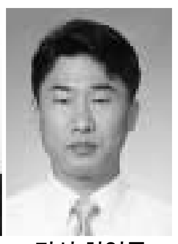
기업 사회공헌 ④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 연금나눔이 사회봉사단

국민연금 수급자중 소년소녀가장에게 후원금 지급 계획

사회복지시설 지원 · 독거노인 행복도시락 전달 봉사활동

단장 송호동


간사 하영문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지사장 송호동)는 연금나눔이 사회봉사단(단장 송호동, 간사 하영문)을 조직해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현재 25명의 직원 중 2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운영하고 있는 연금나눔이 사회봉사단은 월 8만9천원을 모으고 공단에서 매칭그랜트 100%를 지원해 17만8천원을 사회봉사기금으로 적립하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금나눔이 봉사단은 지난해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소흘읍에 있는 어린이 보호시설인 창길잡이의 집에 2~3개월에 1회씩 직원들이 집에 있는 의류와 책자를 모아 제공해왔다. 또 이곳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동화책 읽어주기와 윷놀이도 함께 하면서 부족한 정을 채워주는 일도 실시하고 있다. 직원들이 이곳에 책을 기증하기 위해 100여권이상 모아 전달 한 바 있다.

또 창길잡이의 집 부지마련을 위한 바자회에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각종 의류 및 도서류와 신발류 등을 기증하기도 했다.

연금나눔이 봉사단은 사무실에 다 쓰고 버리게 된 폐토너를 매각하여 얻은 수익금 11만5천원도 사회봉사단 기금으로 적립하기도 했다. 또한 점심식사를 공동으로 주문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기금으로 적립하기도 한다. 이 금액도 1개월에 5만원에 상당한다.

또 봉사단은 성공회 나눔의 집과 연계한 행복도시락 전달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 오후1시부터 3시까지 10여명의 직원이 나서 소흘읍에 거주하는 18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행복도시락을 전달해주고 있다. 시간이 없어 그들과 충분한 대화는 나눌 수 없지만 전달하면서 던지는 미소가 그들에게는 상당한 힘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 이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러 갔다가 시내에 나올 일이 있으면 모시고 나오기도 한다. 아직 이 지역에는 대중교통수단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아 시내에 한번 나오기가 힘든 독거노인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또 봉사단은 직원들의 기증을 받아 포천 아름다운 가게 오픈할 때 의류 80여점을 전달하기도 했다.

송호동 단장은"국민연금 수급자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나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서 선정해서 매달 후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생필품을 지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민연금관리공단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어민 국고보조금 지원이 있다.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1995년부터 실시돼 오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모두 27만5천여명으로 지원규모는 760억원에 이른다. 포천지역의 경우 2007년10월1일 현재 2천382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2007년1월부터는 농어민 국고지원기준이 상향조정되어 농어민 가입자는 가입등급에 따라 9천900원부터 최고 2만3천300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액은 2014년까지 매년 상향조정될 계획이며 2008년엔 2만7천900만원(16등급, 월소득 62만원 기준), 2009년 3만2천850원(18등급, 월소득 73만원기준), 2010년엔 3만5천550원(19등급, 월79만원기준)으로 상향조정될 계획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는 또 찾아가는 서비스를 중증장애인과 무학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류도 받고 병원에 모시고 가기도 하는데 관련서류는 위임장을 받아 처리해 주고 있다. 중증장애인이나 무학자들은 전화상으로 혹은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월 10여건 정도 처리하고 있다.

또 장애인 확인을 받아야 연금처리가 되는 경우에도 병원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대행해 주기도 한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에서는 현재 1천800여명이 가입돼 있는 외국인들이 국민연금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가입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봉사활동에 대해 하영문 간사는 "지금까지 규모나 조직자체가 크지 않지만 직접 어려운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다"며 "앞으로 효과적인 사회봉사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호동 단장은 "기업이 단순히 이윤추구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에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동참하는 나눔 운동에 대한 조직내 동참의식을 공유해 나갈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포천지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사회공헌활동 대상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143 아놀드파마 타올갤러리 포천점

선물용 · 기념품 · 행사용품 타올 · 우산 전문점

대표 김 영 숙

아놀드파마 타올갤러리 포천점(포천시 설운동 16-16. 대표 김영숙)은 결혼 · 회갑 · 칠순 · 개업 · 각종 행사용 맞춤 타올과 우산을 취급하고 있다.

아놀드파마 타올 · 우산 제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ARNOLD PALMER사와의 기술제휴로 (주)J.HYUN INT에서 제조해 전국의 대리점으로 공급하고 있다.

아놀드파마는 국내에서도 약 20년 가까이 골프용 의류 메이커의 선두주자로 골프매니아들과 일반인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명성과 그 품질을 인정 받아온 업체로 유명하다.

선물용 · 기념품 · 행사용품으로 최적

타올과 우산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

타올갤러리 포천점은 지난 2003년 위 곳에 개점한 이래 최고급 타올과 우산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공급하면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개업이래 약 4년 간 세면타올, 바스타올, 골프타올, 스포츠타올, 우산 · 양산, 아동가운 · 성인가운, 타올시트, 발매트 · 슬리퍼, 헤어밴드 · 손수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와 세련된 감각을 마음껏 살려낸 아놀드파마 제품의 타올은 다양한 종류와 포장으로 고객들이 폭 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오랜 시간 고객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아놀드파마 타올 제품으로는 AP-1(10세면 4개들이), AP-2(바둑판세면 5개들이), AP- 3(엠보세면 4개들이), AP-4(줄도비세면 4개들이), AP-5(체크세면 5개들이), AP-6(자가드세면 3개들이), AP-7(14바둑판세면 5개들이), AP-8(15도비세면 4개들이), AP-9(15라인세면 3개들이), AP-10(17삼십세면 5개들이), AP-11(강아지나염세면 3개들이), AP-12(곰돌이나염세면 3개들이), AP-13(32체크바스 1개들이), AP-14(38줄도비바스 1개들이), AP-15(46바스 1개들이), AP-16(타올 · 발매트 종합세트 4종류), AP-17(타올?우산세트 우산1, 타올 4개들이), AP-18(바스종합세트 바스1, 타올 3개들이), AP-19(아동가운), AP-20(성인가운), AP-21(세면타올 2개들이), AP-22(세면타올 3개들이), AP-23, 24, 25, 26,(스포츠타올 1개들이 칼라 다양), AP-27(슬리퍼, 발매트, 헤어밴드 3종류), 셔클샤링, 스프라이프 등 30여 종류의 명품 타올을 취급하고 있다.

그밖에 AP-1(558폭바3단), AP-2(55체크바3단), AP-3(55체크실버3단), AP-4(558폭바2단), AP-5(58체실2단), AP-6, 7, 8, 9, 10, 11 등의 제품과 AP-12(80화이바골프), AP-13(80화이바골프), AP-14(70목실버골프), AP-15(70체크바골프) 등 아놀드파마 명성에 걸 맞는 우산을 취급하고 있으며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싶은 고객들에게 전혀 부작용이 없는 천연 샤워코롱 · 로션 · 샴푸 · 비누 · 바디 클린저 등을 취급하고 있다.

박 대표는 "아놀드파마 타올과 우산 전문점을 개업한지 4년이 되었다. 한번 오신 고객은 이다음에 꼭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고객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단골고객 확보를 위해 최대한 마진율을 줄여 고객들에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상권은 아니지만 고객들이 많이 찾아온다"며 "우산과 타올은 수량에 관계없이 견적에서 인쇄, 포장, 출고 등을 포함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기간은 5일 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박 대표는 "여러 종류의 타올을 사용해 보았지만 아놀드파마 타올은 물 흡수율이 좋고 오랜 기간 사용해도 타제품에 비해 먼지가 없는 제품"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문의T.031)542-8531. F.031)542-8532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아놀드파마 타올갤러리 포천점은 결혼 · 회갑 · 칠순 · 개업 · 각종 행사용 맞춤 타올과 우산을 취급하고 있다.

행복한 보험이야기 · 10

UCLA 89 수석 졸업생의 이야기

보험은 진정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것보다는 그 정신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UCLA 89년도 졸업식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 해 수석 졸업자는 여자였는데 여러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다. 이것저것 물어 보던 중 한 기자가 아버지는 안계시냐고 물었더니, "아버지는 제가 6살 때 사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를 길러 주신 것은 아버지셨습니다."라고 말을 하였다.

기자가 다시 물었더니 이야기인 즉, 그 당시 아버지께서 사망하실 때 들어 두었던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등록금을 충당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보험의 증서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다.

"수잔, 네가 성장하는데 나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 할 것이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이 증서가 나 대신 너를 지켜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바른 사람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수잔은 힘들 때마다 항상 이 말을 생각했고 결국 명문대 수석 졸업이라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끝으로 이 학생이 남긴 말은 비록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많이 없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애정을 돈으로 살수는 없다. 그렇지만 돈에 애정을 남길 수는 있는 것이다. 보험은 꼭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온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 할 수 있다.

유태인들은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조국을 떠나 이국 땅에서 살아남으려는 본능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이아몬드를 목숨같이 여기면서 간직하고 거래를 하다보니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독점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만큼 그들은 종신보험을 좋아한다.

'증조부에게 아무 것도 물려받지 못한 조부모는 나의 부모를 위해 500달러의 보험을 들고 세상을 떠났다. 부모는 그 500달러를 종자돈으로 10만 달러의 보험을 계약할 수 있었다. 나는 그 10만 달러를 가지고 100만 달러의 보험금을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자식도 그 100만 달러로 1천만 달러를 만들 수 있다. 그야말로 나 자신보다 후대 자식들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험이 최고라고 믿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인 미국은 현재, 대부분 10만 달러 정도의 보험에 가입해 있다. 이자에 밝은 유태인들은 최소한 100만 달러의 보험에 가입해 있다.

미국인의 자녀는 10만 달러 인생으로 시작한다면, 유태인은 100만 달러의 인생부터 출발하는 셈이다.

살아서는 다이아몬드, 죽어서는 보험을 굳게 믿고 있는 유태인들이 미국의 경제를 틀어잡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올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보험은 진정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당신은 가족의 꿈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였는가! 준비하였다면 어떻게 하였는가! 가족을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미정
금호생명 경인지역본부
포천지점 매니져
010-3023-0065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을 빠뜨리지 마라

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생명보험금 및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퇴직금 등

퇴직금 · 퇴직수당 · 공로금 · 연금 ·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국민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유족연금 · 유족일시금 ·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위와 같은 재산은 상속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취득 결과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세무관서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있으며,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로부터는 지급조서를 제출받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상속세를 결정할 때 신고내용과 일일이 대사하여 신고누락한 재산은 없는지 여부를 검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위와 같은 간주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납부까지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1일 0.03%를 가산세로 또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세원관리4과
870-4484~4487/4502~4507

산업안전사고 예방

건물 외벽에 간판 고정용 브라켓 설치 작업 중 추락

▶재해발생개요

OOOO년 5월 O일 서울특별시 소재 3층 건물에서 간판 제작 · 설치 근로자인 피재자가 외부 벽면에 간판 설치를 위해 6m 높이의 사다리에서 작업 중 간판고정용 브라켓의 너트를 체결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발생원인

가. 고소작업 방법 부적절ㅇ간판 설치 등 높이가 20m 이상인 고소작업 시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고소작업대를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동시 사다리 위(약 6m 지점)에서 불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함.나.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 미착용

•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 시에는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착용.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고소작업 방법 개선 (작업대 사용)

•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 등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전한 작업대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 고소작업대의 난간은 안전난간 기준에 맞도록 설치, 사용해야 함.

-안전난간은 임의의 방향에서 100kg 이상의 충격에 견딜 수 있을 것

-중간난간은 40~60㎝, 상부난간은 90~120㎝ 사이에 설치할 것

-다른 물체 (작업 공두 등) 등이 아래로 낙하하지 않도록 10㎝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할 것.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국민연금 Q&A ▣ 연금을 받는 수령액의 기준은?

가입기간 길고 많이 납부할수록 연금수령액 높아져

부양가족수에 따라 가급연금액 지급

연금 수령액은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의 합으로 산정된다. 기본연금액을 결정하는 데는 3가지 요소가 반영된다.

첫째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으로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소위 소득 재분배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는 '가입기간 중 자신의 평균소득' 으로 소득이 높아 연금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은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세 번째는 '가입기간' 이다.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다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부양가족연금(종전의 가급연금액)은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다. 부양가족연금은 평균소득월액이나 가입기간과는 상관없이 해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지급된다. 해당 부양가족은 배우자, 18세 미만이나 장애 2등급 이상의 자녀 등으로 제한된다.

부양가족연금은 또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된다. 현재 배우자는 연간 20만220원, 자녀 또는 부모는 1인당 13만 3470원이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책정돼 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들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된 보험료와 미래에 받게 될 예상 연금액을 우편으로 통지하는 동시에 인터넷(www.nps.or.kr) 또는 '내연금 알아보기'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해 다양하게 확인해 주고 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 031-544-8700